

## 자기소개서

소 속	00초등학교	직 위	00	성 명	000
-----	--------	-----	----	-----	-----

### 1 성장배경

초등학교 6학년 시절, 나는 '꼬마 선생님'이었습니다. 국사 시간마다 20분은 내가, 나머지 20분은 담임 선생님이 수업을 맡았습니다. 저녁 늦게 졸린 눈을 비비며 전지에 판서할 내용을 손글씨로 정리하던 그 시간들, 누군가 앞에서 설명하고 질문을 받으며 친구들과 배움을 나누던 그 감각이 어린 나에게는 설레는 책임이었고, 무엇보다도 기쁨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이 내 삶의 방향을 바꿀 첫 씨앗이 될 것임을. 교단 앞에 서는 일이 이렇게도 자연스럽고 즐거울 수 있다는 걸, 몸으로 먼저 느낀 그 시간은, 내가 초등학교 교사가 되는 길로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나를 이끌었다고 생각합니다.

### 2 지원 동기

동산초는 지금, 두 가지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첫째,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학령인구 감소 속에서도 학교의 존재 이유를 지켜내는 작은 학교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고민입니다. 저는 작은 학교야말로 소중한 아이 한 명 한 명을 위한 맞춤형 수업을 할 수 있는 적합한 교육의 본질이 살아 있는 공간임을 경험해왔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작기 때문에 지켜야 할 것'이 아니라 '작기 때문에 더 빛날 수 있는 학교'를 만들고자 합니다. 또한, 교육은 결코 혼자만으로 완성되지 않음도 잘 알고 있습니다. 교사와 학부모, 지역사회가 하나 되어 아이들의 삶을 '함께 가꾸는 교육', 그것이 제가 꿈꾸는 학교입니다.

둘째, 학교 교육의 울타리를 넘어 지역사회와 함께 살아 숨 쉬는 활동으로 지속되고, 확장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동안 생태감수성을 키우는 생태환경 체험, 농촌유학센터 운영, 지역 기관과의 연계 교육, 지역민 축제 참가 등 지역사회와 함께 숨 쉬는 교육을 실천해왔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동산초에서도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교육공동체를 함께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이러한 실천은 단지 학교를 지키는 일이 아니라, 아이들의 오늘과 마을의 내일을 함께 살리는 길이라 믿습니다. 저는 교사들의 전문성이 존중받고, 학부모가 학교 안으로 자연스럽게 들어오며, 마을이 교과서가 되는 교육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동산교육공동체 모두가 같은 곳을 바라보며, 함께하는 삶 속에서 더불어 꿈꾸는 '행복한 꿈동산'을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 3 교육 철학

《어린 왕자》의 저자 생텍쥐페리는 그의 유작 『Citadelle』(『모래의 지혜』)에 담긴 철학을 요약한 격언입니다. 저의 역할은 우리 아이들, 교사, 학부모, 그리고 지역사회 모두에게 배를 만들라고 강요하지 않고, 바다의 아름다움을 알게 해 준다면, 스스로 또는 더불어 배를 만들어 내는 기적같은 일들을 경험해 왔습니다. 교육공동체가 함께하며 성장해가는 하루 하루가 늘 선물이었습니다.

소 속	00초등학교	직 위	00	성 명	000
-----	--------	-----	----	-----	-----

저는 동산교육공동체가 함께 바라볼 ‘삶의 바다’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바다가 충분히 아름답다면, 아이들은 누구의 강요 없이도 스스로 노를 저어 나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몬스테라 잎은 성장할수록 구멍이 생기는데, 이는 아래쪽 잎과 줄기에도 햇볕이 고루 닿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자연의 지혜입니다. 저도 몬스테라의 삶을 닮고 싶습니다. 동산교육공동체를 위해 지혜를 모아 아낌없이 나누고 지원할 것입니다. 교사와 학생이 서로를 믿고 존중하며, 마음으로 이어지는 학교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저의 지향점입니다.

### 3

### ‘배워서 남 주자’ 실천 (0000.00.00.~현재)

0000년 0월 0일, 기다리던 교사가 되었습니다. 지역 교사모임에 꾸준히 참석하며, ‘우리 아이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길’에 대해 고민하고 공부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살아있는 글쓰기’와 ‘살아있는 그림 그리기’ 활동을 실천했고, 부모님 발 씻어드리기, 설거지하기, 부모님 발 그리기, 부모님 칭찬 3가지 하기 등을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실천을 통해 아이들이 부모님의 수고와 사랑을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교감이 된 후, 0000년 학생 뮤지컬 운영학교로 선정되어 아이들과 함께 뮤지컬 공연을 기획하고 무대에 올리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원감으로 근무하면서는 병설유치원 아이들에게도 따뜻한 관심을 기울이며, 급식 지도와 현장체험학습 차량지원, 생일잔치, 동물체험 등 유치원 행사를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교장으로서의 길은 언제나 ‘충분한 협의’를 바탕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업무 추진에 앞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인사업무 배정도 인사자문위원회를 통해 공정하게 결정하였습니다. 7년 숙원 사업이던 학생 통학로 보차도 분리 문제 역시 학부모회, 학교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실현하였으며, 준공식은 학생자치회가 회의를 통해 초대장부터 사회 진행까지 스스로 맡아 진행하게 하였습니다. 운동장 놀잇길 조성도 학부모회와 학생자치회가 함께 참여하여 놀이 종류를 정하였고, 학부모님들이 직접 놀이를 지도해 주셨습니다. 휴일에 교육가족 모두가 모여 함께 놀잇길 작업을 하였으며, 학교는 모두의 손길로 빛어진 공간임을 느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학부모회와 함께 인형 탈을 쓰고 깜짝 아침 등교 맞이를 하던 ‘허그데이’입니다. 아이들 한 명, 한 명과 인사를 나누던 그 순간들이 너무나 소중했고, 동산초에서도 꼭 다시 해보고 싶습니다.

2020년에는 섬진강 범람으로 많은 학부모님들이 수해 피해를 입으셨습니다. 그 마음을 위로하고자 교무회의를 통해 업무추진비를 활용한 위로금 지원을 결정하였습니다. 선생님들께 써야 할 예산을 기꺼이 양보해 주신 동료 교사들의 마음이 참으로 고맙습니다. 또한, 복구에 애쓴 지역 기관들을 찾아가 학생자치회가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기관방문 이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아이들에게 공동체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삶의 태도를 자연스럽게 경험하게 한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작은 학교의 고민인 학생 수 감소 문제는 늘 안고 가야 할 과제입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학부모회, 운영위원회, 지방자치단체와 지역발전위원회의 협력으로 든든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장단 회의, 지역발전위원회, 기관단체장 회의, 재경향우회(서울) 등 다양한 자리에 참여하여 학교의 상황을 설명하고, 함께 해줄 것을 요청해왔습니다. 더불어 전국 초등학교 교장단을 대상으로 1박 2일 ‘0랜드 체험’을 통해 농촌유학 프로그램을 홍보하였습니다. 지역사회의 자원을 연계한 교육 활동으로는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00의료원과 연계한 건강증진 수업(‘행복놀이터’, 연 6회), 0랜드와 협력한 ‘행복밥상 수업’ (0000년 8회, 0000년 6회 예정), 어린이들의 꿈 전시회(면사무소, 0랜드, 작은도서관), 면민의 날 행사 참가, 작은도서관 수업 나눔(월 2회)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 속	00초등학교	직 위	00	성 명	000
-----	--------	-----	----	-----	-----

0000년부터는 농촌유학 가족체류형 거주시설이 기존 0채(0000)에서 0채(0000)로 확장되며, 농촌 유학생이 00명으로 증가하여 현재 전교생 00명이 함께 배우고 자라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이나 민원 발생 시, 되도록 교장이 직접 해결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상황을 교장이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할 때, 빠른 시간 안에 해결이 가능하다는 점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장실에서 아이들과 매일 만납니다. 간식을 나누며 아침 영어 수업도 함께합니다. 아이들은 내게 네잎 클로버를 찾아 행운을 선물하고, 저는 책갈피에 간직하는 법을 알려줍니다. 가끔 생채 텃밭에서 수확한 채소를 두 손 가득 가져다 주고, 작디작은 청개구리를 손등에 올려 놓고 이야기 하기도 합니다. 아침마다 교장실로 와서 영어책을 읽고 가는 아이, 주말 동안 있었던 일을 쫓알쫓알 전해주는 아이들... 그 모든 순간 속에서 저는 배웁니다. 아이들은 어른들에게 에너지를 주고, 어른들은 삶의 지혜를 나눌 수 있다고 믿습니다.<sup>1)</sup>

## 4

### 함께하는 삶 속에서 더불어 꿈꾸는 행복한 공동산에서 함께하기를

저는 아이의 삶을 중심에 두는 학교, 지역과 함께 숨 쉬며 내일을 준비하는 학교를 만드는 일에 동참하고자 동산초 교장 공모에 지원하였습니다.

#### 첫째, '배움과 나눔'이 살아 있는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동산초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아이들이 함께 배우는 배움터입니다. 발달 단계가 상이하거나, 천천히 배우는 아이, 다문화·한부모 가정의 아동 등 교육적 배려가 필요한 아이들이 누구보다 따뜻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고, 협력적 학습 문화 속에서 자존감을 키울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둘째, 마을과 연결된 생태·체험 중심 교육을 실천하겠습니다.

동산초의 가장 큰 자산은 자연입니다. 이 자연을 살아 있는 교과서로 삼아, 계절별 생태 프로젝트와 지역 농가와 연계한 체험 활동을 통해 아이들이 삶의 감각을 배우고,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가꿀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지역과 학교가 함께 성장하는 교육생태계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 셋째, 지역과 함께하는 지속 가능한 농촌유학 운영 체제를 마련하겠습니다.

동산초는 학생 수 감소라는 어려움 속에서도 농촌유학을 통해 학교의 숨결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유학센터 중심 구조는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이에 가족체류형 유학이 가능하도록 민관 협력을 모색하고, 주거 공간 부족 문제는 지역 유희공간을 발굴하거나, 지자체와 협력하여 임대형 주택을 마련하는 등 현실적인 해법을 추진하겠습니다.

#### 넷째, 따뜻한 리더십으로 교직원과 함께 가는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교사의 업무 피로도를 줄이고, 수업과 생활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학교 안에서 자율성과 책임이 공존하는 문화를 만들겠습니다. 소통과 협업의 리더십으로, '우리의 학교'를 함께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제 동산초에서

**아이들, 교사, 학부모, 그리고 지역사회 모두의 마음속에**

**다시 꿈을 꾸고 싶어지는 바다를 떠올릴 수 있도록,**

**저는 그 길을 조용히 비추는 파스한 햇살이 되고 싶습니다.**

1) 열린순창. (2024년 7월 16일). 인계초 주관, 농촌유학활성화 전국초등교장 연수(<https://www.opsc.kr/news/articleView.html?idxno=43620>)